

# ‘제20회 서울식품전’ 현장을 가다

제과기계업체 공동 부스서 신제품 선보여



제20회 서울국제식품기술전(SEOUL FOOD 2002)이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www.kotra.or.kr) 주최로 지난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 서울무역전시장 및 옥외특설전시장에서 4일간 개최됐다.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 업체 217개가 전시회에 참여해 신제품 및 주력 품목을 전시했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도 69개의 업체가 참여해 관련업계의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전시관 제1홀, 제3홀에서는 국내업체가, 제2홀에서는 외국 업체가 주로 부스를 마련해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쳤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대회에 비해 출품업체 수는 줄어들었으나 전시 품목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식품관련 업체는 식품·식품첨가물, 주류·음료, 식품가공기기 및 식품포장기자재, 호텔·주방·요식용기기, 기타 식품관련 정보 등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제과관련 업체 가운데 제과기계 업체의 참여율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모두 2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제과기계업체가 디자인 및 기능을 강화한 제품을 대거 선보여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대회에서 각 제과기계업체들은 전시회 참여 비용을 절감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공동 부스를 마련했다.



〈취재 / 임희정 lim@mbakery.co.kr〉